[별첨 1. 2021 양성평등 임금의 날 성명서]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1.5%(2020년 기준)로 OECD 회원국 중 또다시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OECD 성별 임금격차 연구에 참여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현재까지 여성에 대한 심각한 임금차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1.5%의 성별 임금격차는 전년 대비 1% 감소한 수치이다. 그러나 작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성의 경력단절·휴직·실업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해당 지표가 여성 경제활동 환경의 개선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2020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9년 대비 0.9% 감소하였으며 고용률은 1.1%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0.4% 증가하였다. 성별 임금격차가 직장 근속연수와 상관관계를 가지는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감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성별 임금격차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한국YWCA는 지속적으로 시민사회에 동일임금의 현실과 동일임금의 날 제정의 중요성을 알리고 문제해결을 촉구해왔다.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공개토론회, 국회 방문, 동일임금의 날 입법청원, 전국 캠페인, 온라인 캠페인,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성별 임금격차의 현실과 문제를 알리고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제 2020년 '양성평등 임금의날'이 제정되면서 한국YWCA 동일임금의날 운동은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바로 지금, 폭 넓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과 신속한 적용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YWCA는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 철폐를 위해 계속해서 정책 제안 및 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성평등한 세상을 이룰 것이다.

한국YWCA는 성별 임금격차의 해소와 차별임금에 시달리는 여성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을 요구한다.

1. 동일임금원칙 적용을 강화하라!
2. 투명한 임금 체계를 구축하라!
3.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라!

2021년 9월 2일
한국YWCA연합회